

2009 국제 부품 · 소재산업전 개최

국내 최대 규모의 <부품 · 소재산업전시회>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(KINTEX)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이에 따라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2월28일까지 부품 · 소재산업전의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다.

참가대상은 기계 및 자동차, 전기 · 전자, 로봇 부품을 비롯해 금속, 화학, 섬유, 세라믹 소재 등을 취급하는 기업이다.

<2009 국제 부품 · 소재산업전시회>는 국내외 25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품 · 소재 전문 전시회로 4월16-19일 4일간 진행된다.

특히, 2009년에는 지식경제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-일본 부품소재 조달 · 공급전시회와 동시에 열려 일본의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.

삼성전기, LG이노텍 등 국내 150여개 기업과 캐논, 도시바, 미쓰비시전기,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의 60여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.

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홈페이지(www.imac2009.com)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. (문의 ☎ 031-810-8045)

<화학저널 2009/02/24>